

2020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회의 공동 개최한다

광주트라우마센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2020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센터와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7번째 국제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는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오다 이번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는 지난 16일 '2020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10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폭력, 트라우마

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라는 주제로 한국, 대만, 그리스, 독일, 멕시코의 이행기 정의 노력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나은 이행기 정의 방식과 트라우마 치유 방식의 가능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국제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를 위해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옥기자



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은밀히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적발까지 장시간 소요로 적발시점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 은닉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외국인 43%, 최근 5년간 DMZ 최초 인지... '평화'보다는 '전쟁' 떠올라

DMZ에 대한 국내외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 43%는 2015년부터 DMZ를 인지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Z 하면 떠오르는 최초 연상 키워드로는 '전쟁'이 제일 높았으며, '평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2020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2020년 DMZ 인식 설문조사' 결과로, 2019년 실시한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한 분석 자료를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 '국토 분단'에서 '인식의 분단'으로>에 담았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존 한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중국(홍콩, 심천), 독일(베를린, 그뤼네스브란트 접경지역)에서 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 영국 북아일랜드)를 추가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강하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 이미지 비교 등 현재 상황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조사 결과 외국인은 대체로 2000년에 DMZ를 인지하기 시작, 2015~2019년 5년간 인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Z에서 정상회담과 이벤트가 증가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DMZ 가치는 2019년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생태자원, 평화상징의 가치가 약간 낮아지고, 경제자원 가치는 소폭 증가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 교착, DMZ 활용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다

수상 DMZ 역할을 하는 '한강하구'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 39.8%만

인지... 인식 분단 심화 가능성 높으므로 역사 복원과 체험 강화 필요



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DMZ 최초 연상 키워드는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전쟁'이 대폭 증가하고 '평화'는 감소했다. 이는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등 DMZ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의한 단계적 인식 변화로 판단된다.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응답자의 DMZ 접경지역 방문율은 71.8%로, 40.0%인 한국인에 비해 1.8배 높다. DMZ가 관광 목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DMZ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인 응답자의 경우 수상 DMZ 역할을 하는 '한강하구'에 대한 인지

율은 39.8%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주요 자원인 한강하구가 기억에서 사라져 '인식의 분단'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강하구에 대한 최초 연상 이미지는 자연, 습지, 평화, 환경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 개방 및 활용 방안 1순위로는 '옛 포구 및 포구마을 복원'(24.2%), '습지 보호지구 지정'(19.2%) 순으로, 1~3위 합계에서는 '습지 보호지구 지정'(49.3%)으로 나타났다.최근 정세 변화를 고려한 한국에 대한 최초 연상 키워드로 외국인은 평화와 통일, 전

박상찬기자

서울시의회, 혁신성장 이끌 미래인재 육성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과 황인규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특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내 지식재산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김수규·황인규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 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전개됐다.특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의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이와 더불어 김수규, 황인규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후에 조례안 특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식재산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수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특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지식재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황인규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신 인류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은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의 개념과 활용 등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서울의 학생들이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Advertisement for 'Naju Love Card' (나주사랑카드) featuring NHCard and ShinhanCard logos, and text: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Convenient to use Naju Love Card gift certificate launch). Includes details on issuance date (20.9.1), application, and terms.

# 인천시의회,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 독점적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대면 방청은 제한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공공배달앱 공공배달앱은 운영형태에 따라 가정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0~2%대의 저렴한 중계수수료로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개편

이슈가 겹쳐 배달앱 시장의 '기술적인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됐다.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발제자 3명, 토론자 7명이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배달앱 독과점이 수와 수수료 인상으로 지자체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수인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 변화가 중요한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이 민간에 미치지 어렵다"며 충분한 역할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 사례로 군산시 '배달의 명수'와 인천 서구 '배달서구' 운영성과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승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천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배달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금년 3월에는 18.2%를 기록했으며 이러

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독과점 배달시장의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이며 공공배달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공익목적의 경제정책이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강원도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경계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현재의 구도가 지속된다면 단언할 수 없으며 독과점 견제를 위해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 바람직하며 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 했다. 또한 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은 서울시 '배달제로 유니온'과 같이 제한된 공공의 역할 범위에서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만나플래닛 박병기 이사는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투자와 기술개발로 준비된 민간기업을 발굴해 공적 역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 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충북청주시와 같이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 연결 등 행정·홍보지원을 맡는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종남/기자

# 중구, 비대면 영상회의로 언택트 소통

## 21일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해 실시간 현안업무 공유

중구가 21일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현안업무를 공유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온나라 이음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을 포함한 64명의 국장, 과장, 각 동장들이 별도 회의장이 아닌 각자 사무실 자리에 앉아 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쉽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던 300여명의 팀장들도 각자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청하며 구정 업무 전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비대면 영상회의의 시행은 행정업무의 연속성은 이어가되 코로나19 확산은 막기 위해 공간 밀집도를 낮추고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는 긴급사항 발생시 및 업무효율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향후 구정활동 중 비대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중구는 비대면 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구정 업무를 비롯해 구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언택트 소통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미래 주역 청년 활동 적극 지원"



김영록 전라도지사는 18일 광양청년꿈터 개소식에 참석,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광양시 청년센터의 희망찬 출발을 축하하며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정현복 광양시장,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광양시 청년 10명이 참석했다. 광양시 중마동에 자리 잡은 광양청년꿈터는 청년 카페와 일자리 상담·창업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이 있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취·창업 활동을 아우르는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 지사가 주재한 소통 간담회에서는 광양시 청년들과 전라남도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미 있고 폭넓은 견해들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청년정책 상담사', '청년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원을 희망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청년 행복시책으로 추진 중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청년단체 빛나는청춘 김한나 대표는 "오늘 개소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기관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광양청년꿈터의 주인은 청년 여러분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청년센터가 더욱 의미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전라남도는 청년센터 운영과 미래 주역인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예천군, 용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 총사업비 490억 확보, 단일사업 최대규모

예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1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용궁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단일사업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4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관거 정비 9.5km, 배수펌프장 1개소, 소하천 정비 4.72km, 교량 3개소 등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 소관 우수관거 정비,

국도교통부 소관 지방하천 정비와 행정안전부 소관의 소하천정비를 동시에 시행해 공기 단축과 함께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예천군수는 국비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 실사에서 직접 사업의 질실함을 설명했으며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사업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시설물을 보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식 / 부회장 박상관 / 사장 박부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퍼 언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 02)2060-4147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전남도, 전통시장 '방역수칙 점검' 나선다

## 방역용품 지원 및 방역수칙 준수 실태 합동 점검

전라남도는 도내 전통시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이행 실태에 따른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전남 인근 타지역에서 전통시장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도내 116개 시장에 마스크 15만 6천매와 손세정제 2천 320개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될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 방역용품으로 전통시장 방역강화를 위해 특별 지원되며 시군별 전통시장수와 점포수에 따라 배분된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합동점검은 주로 상인 마스크 착용 및 방역용품 활용 여부를 비롯 정기적인 소독 실시, 방역관리자 운영 현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펼치게 된다.

점검결과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 및 상인회를 중심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지속돼 도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우

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분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 산청군 저수지 안전관리 위한 잡목제거 실시

11개 읍면 185개소 대상 유지관리

산청군은 지역 내 저수지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잡목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저수지 잡목제거 사업은 11개 읍면 185곳의 저수지에 대해 풀베기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풀베기 작업은 우기를 지나며 저수지 제방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잡초 등을 제거해 관리인의 원활한 수문작동과 시설물 파손여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목적이다.

군은 잡목이 무성해 불편을 초래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제거사업을 시행,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촌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풀베기 사업으로 고농축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용출 효과와 함께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을 함께 실시해 깨끗한

남궁영기/기자

# 진안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진안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8일 진안 공용터미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설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진안 공용터미널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진안군, 진안 119 안전센터가 참여해 밀도 있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사항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운영 현황 및 교육·훈련 실태, 전기·기계 분야, 시설물 안전관리, 가스 등 화기 사용 및 취급에 따른 안

전관리, 소방분야 시설·장비의 적정 및 유지관리 분야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 시 마스크 착용을 했으며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안전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대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철/기자



# 박종원 경제부지사, 추석 배송물량증가대비 양산유통물류센터 방역상황 점검

## 추석 연휴 온라인 주문 급증에 대비 방역관리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추석연휴 온라인 주문·배송 급증에 대비한 온라인 유통업계의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17일 오전 온라인 유통사 '쿠팡 양산유통물류센터'를 방문한 박 부지사는 유통물류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및 시설 방역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배송기사 등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방역점검은 특히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집단감염으로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전자출입 관리 직원 간 근거리 접근 정보 공유물품 사용자 추적 비대면 배송 등 전반적인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쿠팡 유통물류센터는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8월 23

일부러 고위험시설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에 해당되어 집합 금지·제한에서 제외시설로 분류돼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돼 왔다. 성 장관은 유통물류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유통물류센터는 국민의 생필품을 비대면으로 조달하는 필수산업시설이므로 자금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갖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또 "가성비 좋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들을 많이 발굴·판매해 판로 확

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도 물가안정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 첨단 유통물류센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많은 투자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종원 부지사는 물량이 많아지는 추석 배송에 특히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 하면서 "물류유통센터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산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 카메라고발

광명시 도심 곳곳이 쓰레기 더미로 수일씩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정부/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기아자동차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 감염 위험있는 대상자 전원 코로나검사 무료실시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9월 17일 현재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9월 17일(목) 경기도 역학조사지원단과 합동으로 기아자동차 관련 직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역학 조사결과 연관성이 있는 직원 전원에게 대해 검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질병관리청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직원 중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직원 700여명에게 코로나 검사 실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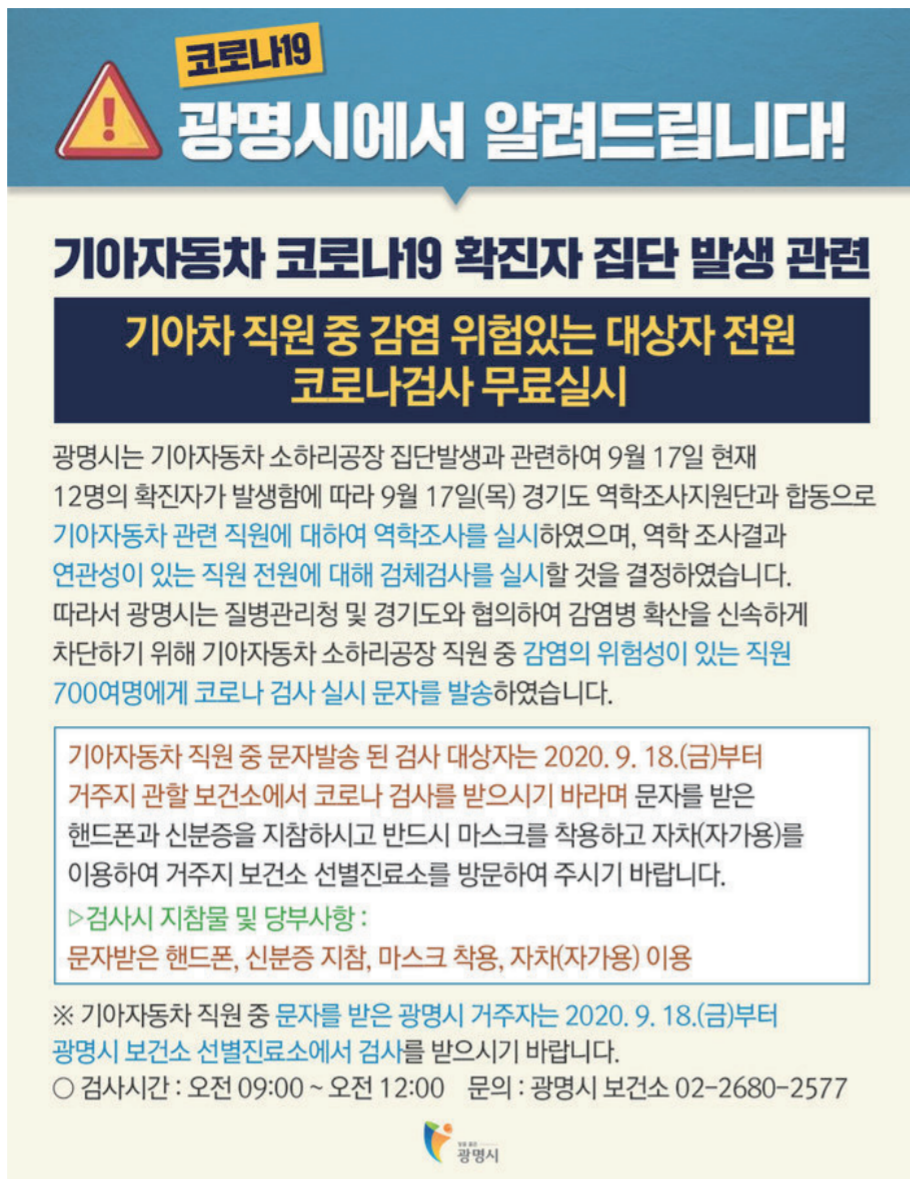
기아자동차 직원 중 문자발송 된 검사 대상자는 2020. 9. 18.(금)부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직원 중 문자발송 된 검사 대상자는 2020. 9. 18.(금)부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검사시 지침 및 당부사항 : 문자받은 핸드폰, 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자차(자가용) 이용

기아자동차 직원 중 문자를 받은 광명시 거주자는 2020. 9. 18.(금)부터 광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시간 : 오전 09:00~ 오전 12:00 문의 : 광명시 보건소 02-2680-2577

전순희/기자



**코로나19**  
**광명시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아자동차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관련**  
**기아차 직원 중 감염 위험있는 대상자 전원**  
**코로나검사 무료실시**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9월 17일 현재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9월 17일(목) 경기도 역학조사지원단과 합동으로 기아자동차 관련 직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역학 조사결과 연관성이 있는 직원 전원에게 대해 검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질병관리청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직원 중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직원 700여명에게 코로나 검사 실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직원 중 문자발송 된 검사 대상자는 2020. 9. 18.(금)부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문자를 받은 핸드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자가용)를 이용하여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시 지침 및 당부사항 : 문자받은 핸드폰, 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자차(자가용) 이용

※ 기아자동차 직원 중 문자를 받은 광명시 거주자는 2020. 9. 18.(금)부터 광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시간 : 오전 09:00 ~ 오전 12:00 문의 : 광명시 보건소 02-2680-2577

광명시

# 동작구, 자치회관 온라인 프로그램 시범운영

동작구가 오는 12월 말까지 '2020년 자치회관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운영제한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든 연령층의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 15일까지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전환 가능한 총 33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은 생활요가, 라인댄스 등 스포츠분야, 우쿨렐레, 하모니카 교실, 서예·한문교실 등 문화분야, 일본어·생활영어·중국어 등 어학분야, 스마트폰으로 내 영상 만들기,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요리교실 등 취미분야이다. 구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유

튜브 네이버 밴드 줌 등을 활용해 진행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강사와의 질의응답과 수강생들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구는 강사의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작권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법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작구에서 생활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부터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의 원활한 수강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별 수강 지원장구를 운영해 플랫폼 가입 및 설치 방법, 기타 수강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한편 구는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5개 시범동 운영에 이어 올해 전동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 지역감

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자치회관 문화강좌를 마련했다"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자치회관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방법**  
1. 신청: 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신청  
2. 수강: 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수강  
3. 문의: 주민자치회 사무실 (02-2680-2577)

**준비사항**  
1. 인터넷 연결 환경  
2. PC 또는 스마트폰  
3.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증 사본

**2020년 10-12월 자치회관 온라인 프로그램**  
10월: 생활요가, 라인댄스, 우쿨렐레, 하모니카 교실, 서예·한문교실  
11월: 일본어·생활영어·중국어, 어학분야, 스마트폰으로 내 영상 만들기,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요리교실  
12월: 취미분야

# 마포구, 상암동-서울산업진흥원 콜라보로 '거슬랭 가이드' 탄생

이용자 솔직 경험담이 특징, DMC홍보관 등 곳곳에 비치 예정

올해 상암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근심에 빠졌다.

인근 가게 사장님들의 힘들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상암동을 찾는 관광객들도 적어지다보니 뭐라도 해서 기울어진 동네 상권을 살리고 싶었다.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았고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상암동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거슬랭 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됐다. 마포구는 상암동의 구시가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상암동 맛집 지도인 '거슬랭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구 상암동은 지역 특성상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구시가지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양 지역의 문화와 생활권이 달라서 이를 이어줄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줄어들며 지역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상암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고민이 시작됐다.

그 결과, 상암동이 우량 기업과 미디어, 방송국 등이 밀집되어 있어 여느 곳보다 지역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하게 됐고 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산업진흥원과 손을 잡고 맛집 가이드북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DMC형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상암동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 최고 권위의 식당 가이드북인 '미슬랭'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암동 내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와 거인의 합성어인 '거이니지'를 탄 '거슬랭 가이드북'이 마침내 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된 '거슬랭 가이드북'에는 상암동 구시가지에 있는 한식을 비롯한 양식·중식·일식과 카페 및 프랜차이즈 등으로 나뉜 총 70개의 맛집이 담겼다.

수록 맛집들은 주로 상암동 주민과 직장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위주로 선정했으며 이용자의 솔직한 경험담이 함께 실려 재미있고 신선하다. 이용 경험담 외에도 맛집에 관한 알찬 정보도 가득 포함되어 있다.

총 1000부가 제작된 가이드북은 약 70페이지 정도의 미니책자 규모로 상암동 DMC홍보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로 인해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비록 큰 힘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Digital Media City  
**거슬랭 가이드**  
가게까지 #행저택 상암동 먹거리 70  
sba M20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

# 인천시,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선정

'마음에 온, 생명에 on'사업 통해 자살예방 홍보활동 추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에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자살사도 차단, 자살위험자의 생명 보호와 예방활동을 진행하는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이다. 이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선정으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음에 온, 생명에 on' 홍보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음에 온, 생명에 on'은 인천시 자살예방사업 브랜드 네이밍으로 우울감, 자살충동 등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에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센터에서는 자살

예방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사와 자살사망 다발지역 총 18곳에 생명사랑 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자살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7.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조금 높으며 전국 중위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자살유족원스터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와 함께 자살률이 높은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융합형 안전난간 설치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5년간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군·구별 자살사망 원인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인천시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각균 시 건강증진과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만큼 다양한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펼쳐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2020년 보건복지부-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선정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 청년이 주인공 되는 날, 대구 청년을 응원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올해 9월 19일 첫 시행

대구시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 문제 공감대 확산과 청년 지원을 위한 '2020 대구청년주간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경상감영길 일대 9개의 청년공간에서 비대면 위주로 분산해 진행한다.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대구청년주간'은 2015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청년축제로 개최된 이후 타시도로 확산되기도 한 행사다.

올해 1회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은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돼 법정기념일이 됐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비대면 위주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에 대해 다뤄보는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인 청년팝업존, 그리고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청년응원공간, 온라인 사전이벤트인 청년 1939명 목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은 기념식을 겸한 기초 강연과 4가지 주제 세션으로 구성돼 대구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인 보라그래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흐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초 강연과 청년일 경험·청년상담소·청년활동·청년정책을 각각 다루는 주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청년과 시민들은 댓글달기를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팝업존은 경상감영길 일대 9곳에 마련된 다양한 청년공간에서 진행되는 사전 예약제형 전시·체험 프로그램이다.

방역관리 차원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해 1회당 4~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된다.

카페, 서점, 체험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만들기 체험, 전시 등이 운영된다. 또한 청년응원공간을 운영해 청년의 날 홍보와 청년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구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공간으로 카페, 식당, 상점 등 70곳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청년응원공간에서는 청년의 날 포스터, 깃발 등을 참여공간에 게시해 청년의 날을 홍보하고 청년을 응원한다. 청년 1939명 목소리는 온라인 사전이벤트로서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설문조사 작성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청년정책으로 고용지원, 자기탐색지원, 주거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1회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청년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류석/대구기자

# 예천군,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기탁 받아

27년 만의 귀향, 저상일월 등 180점 유물 기탁

예천군은 18일 오후 2시 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46점을 비롯한 180점의 유물이 예천박물관으로 기탁됐다고 밝혔다.

함양박씨 정랑공파는 예천 금당실 임향조인 박종린을 잇는 가계로 그의 형제 모두가 문과에 급제해 '향오린'으로 불리었다.

박종린은 1532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함림과 흥문관 박사를 거쳐 이조 정랑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은 1989년 8월 1일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이후 1993년 경 소유자 병환으로 예천이 아닌 서울시 동대문구,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등으로 보관 장소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만국전도'의 분실과 회수 등 수많은 고난을 겪은 유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탁은 1993년 예천을 떠난 지 27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으며 지역의 문화재는 해당지역에서 보존·연구·전시·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화재의 원칙론을 이행하는 바람직한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다.

예천박물관으로 기탁된 보물은 6대에 걸쳐 117년 동안 쓰여진 일기 '저상일월'을 비롯해, 매일 집에서 소요되는 수입과 지출을 적은 가계부 성격의 '저상일월', 나암 박주대가 구한말 격변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나암수록', 당나라 시인들의 한시를 조선 전기 목간본으로 간행한 '당시고취', 조선 전기 당나라 조정의 책문 75문을 편찬한 '당주책림', 중국의 편년체 역사서를 조선 전기 목활자로 간행한 '통감', 1661년 여필 박정설이 확대 필사한 세계지도인 '만국전도' 등이다.

특히 '저상일월'과 '저상일월'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7호인 미산고택에서 쓰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작성된 일기로 오래전부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권의 연구서가 발행됐다.

'만국전도'는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도난당한 것을 2019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의해 회수됐다. 이 유물은 선교사 알레니가 1623년 편찬한 한문판 후대용 세계지리서 '지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민간에서 확대, 필사한 세계지도이

다.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유물은 금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천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소유자인 박재문씨는 "이번 기탁 유물은 집안의 보물이자, 국가의 보물로서 예천박물관에서 안전하게 보존·관리·연구되어 지역의 풍성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박물관을 통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유물의 도난과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고 우수한 유물의 학술 연구와 상설 및 특별전시, 교육 등을 진행해,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지인에게 우수한 지역 문화자산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원형/기자



# "올 추석은 함안 농·특산물과 함께"

함안군,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 개최

경남 함안군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1일간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적극적인 추석맞이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해 청정 함안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추석 선물세트 팸플릿을 제작해 재부산함안향우회와 기업체, 기관·단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팸플릿은 포도, 잡곡, 전통발효식품, 표고 선물세트, 꿀, 축산물 등 다양한 함안명품 농·특산물로 구성됐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특판 행사가 진행된다.

고속도로 칠서휴게소 내 함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29일까지 품목별 5~10%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오픈한 함안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75㎡ 규모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 잡곡, 꿀 등 농산물과 차, 증, 부가, 전통 장류 가공품 등 50여 농가 및 업체가 입점해 270여 품목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특히 올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출항인 고항방문이 줄고 추석선물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추세여서 비대면 판매를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 함안군 공식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도 판매농가와 제품의 기본정보를 비롯해 특판 행사 정보를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판 행사를 통해 함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 2020 김천시청소년어울림마당 "일취월장" 두 번째 이야기

김천시는 오는 9월 19일 오후 5시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020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일취월장" 두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각급 학교 청소년 동아리 8개팀의 공연은 무관중으로 이루어지며 공연동아리 팀들이 9월 19일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평생교육원 대강당에 도착해 각각 지정된 시간에 따라 공연을 함으로서 출연자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연 촬영 영상은 9월 19일 오후 5시에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이날 공연순서는 연합동아리 금동하리케인의 국악무대를 시작으로 헤이미쉬 댄스공연, 가야금병창단, 김천중댄스팀, 원에이의 댄스공연, 허즈밴드, 남탕밴드, 1+2밴드의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8개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 되어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여성가족부와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김천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유튜브 채널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양현석/기자






##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만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 '추석맞이 남원명품 과실 한창 수확'

## 최고의 품질 고랭지 포도와 사과 효자 품목으로 각광

남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남원시 공동 조합법인을 통한 남원시 과수 생산물의 대대적인 판로에 나섰다. 예년과 비교해 금년에는 4월 이상 저온과 7~8월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지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의 작황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고랭지 사과와 포도는 해발 450m의 지리적 자연 조건을 이용한 경작으로 타 지역에서 재배된 과일보다 착색과 당도가 좋아 여전히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원시 고랭지에서는 해발450m의 지리적 자연조건을 이용한 고품질 사과와 노지포도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7월 시설포도 출하를 시작으로 9월말까지 남원시 공동조합법인의 참여농업인 지리산농협 및 운봉농협에서는 막바지 공동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하되고 있는 남원 고랭지 포도는 당도가 14~15°Bx로 높아 피로 회복에 좋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암성분이 있어 암의 억제에 효과적이다. 고랭지 포도는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전 매장에 납품되며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평야지 선별 물량을 포함 700여톤이 납품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 남원시 전체 선별 포도는 4,500톤, 금액으로는 150억원 예상되며 공동조합법인 참여 농협별 대형마트 납품량은 800여톤, 50여억원 납품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한 유일한 폴레스테롤증가로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며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사과는 금년에 이상저온과 긴 장마로 인해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고 품위 또한 예년에 비해 좋지



양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남원시는 적극적인 공산회 참여로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의 균일성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산 출하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남출/기자

# 영암군, 영암호 내수면 불법 어구 철거

영암군은 지난 18일까지 영암호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해 일제 철거 작업을 진행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에 나섰다. 지난해 신규 내수면 허가가 난 영암호가 붕어, 잉어, 메기, 장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불법어로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해 깨끗하고 쾌적한 어장관리를 위해 철거 작업을 시행했다. 군은 영암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50여명과 어선 및 중장비를 동원해 삼각망 및 페그물 85틀을 수거했다. 이번 철거 작업 시행 전 사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 기간을 두고 홍보와 독려에 나섰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어구들을 모두 철거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산강과 영암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211틀을 제거해 내수면 수질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에 일조한 바 있다.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내수면 정화 활동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완도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40억 확보

## 완도문화원, 어린이·청소년·지역 주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완도군은 '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완도 별바다 지식·치유 어린이 플랫폼'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완도문화원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3년간 추진하게 된다. 완도군문화원은 30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 신시가지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7년 동안 폐 공간이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을 위한 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 '완도 별바다, 지식·치유 어린이 플랫폼'을 비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지식·치유놀이 플랫폼, 청소년 안전문화 거점 공간 조성,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 야간 문화를 위한 힐링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언플러그드 야외 공연장과 야외 옥상 우드 테라스 조성, 꿈바라기 별빛 공원 등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복지시설과 연계시켜 완도문화원이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민들이 활기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선 완도읍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완도문화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뤄 낸 값진 성과이다"며 "완도읍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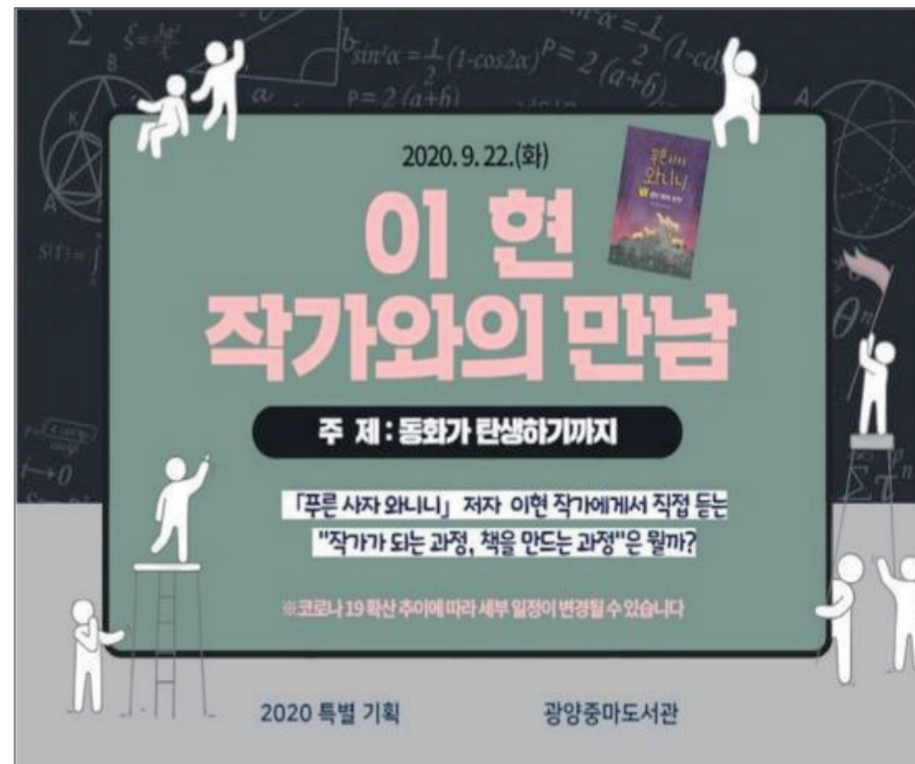


# 광양시, 이현 동화작가 초빙 '초등학생을 위한 강연' 운영

광양중마도서관은 2학기 개학을 맞은 백운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10시 '9월 독서의 달 특별 기획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한 학기 한 책 읽기' 수업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의 저자 이현 작가를 초청해 '동화가 탄생하기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푸른 사자 와니니'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사자 와니니가 초원을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존재는 소중하며 다른 존재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담고 있다. 푸른 사자 와니니 1권과 2권 모두 해당 출판사와 인터넷 도서 판매 플랫폼에서 2019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이현 동화작가는 '푸른 사자 와니니 2권' 속에 담긴 다양한 상징과 그 의미를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해줄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작가로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그에 따른 고민을 들려주면서 동화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백운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생 모두가 '푸른 사자 와니니'를 읽으며 작가 선생님과 만남에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의 작가를 가까이에서 만나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조기석/기자



# 화순군 음식연구회 회원들, 국제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 남도약선연구회 김숙희·김문자·김명자·김영옥 씨, 한국음식 전시 경연 분야에서 쾌거

화순군은 최근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관한 '2020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남도약선연구회 회원들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도약선연구회 김숙희 회장, 김문자 고문, 김명자·김영옥 회원은 한국음식관광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으로 한국 음식 전시 부문에 참가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보리밥한상, 경곡고환·차·다식, 아스파라거스 소박이, 봉장어 사브사브, 황칠 닭장·간장·된장·고추장을 전시에 지역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김숙희 남도약선연구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갈고닦은 솜씨를 뽐낼 기회가 적어져 아쉬웠는데 대통령상을 받게 돼 우리 연구회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 음식 고유의 맛과 정갈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았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남도약선연구회는 현재 회원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자체 연찬 활동과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전국 경연대회

에 참가해 수상 이력을 쌓으면서 지역 음식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분야별 학습을 통해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에 수상한 회원 모두에게 축하드리며 이후에도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영광군, '천원 여객선' 운영에 섬 주민들 싱글벙글

## 3개 노선 항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4,030명 여객선 이용

영광군은 여객선 운임 실 부담액을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단돈 천 원만 내는 '천원 여객선'을 지난 6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7일 현재까지 향화-낙월, 계마-안마 등 3개 노선 항로 '천원 여객선' 탑승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6% 증가한 4,030명이라고 18일 밝혔다.

천원 여객선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100원 택시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섬 주민 교통약자에게도 보편적 해상교통 복지를 위해 본격 추진했다. 여객선 운임은 섬과 섬, 섬과 육지의 유일한 통로이나 운임비는 육지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실정이다. 육상의 경우 영광-광주 간 거리는 46km로 운임비는 6천1백 원인 반면, 해상운임은 영광-안마도간 43km이나 해상운임은 1만2천200백 원이다. 천원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월면 주민들은 "여객 운임이 부담되어 육

지로 나갈 때 한 번에 일을 보느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교통비 부담이 없으니 병일이고 시장이고 여유 있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천원 여객선을 3개월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만족도도 높다"며 "낙월도 명품어촌 개발,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꾸꾸기 등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영광 군민과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 화순군, 100여 개 공유자원 등록.군민 편의 제공

화순군이 관내 공영주차장, 회의실, 라운 측정기, 방역기 등 공공자원 100여 개를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공유누리' 시스템에 등록했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해 지난 3월 정식 개방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포털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 등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개발 자원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공유누리 포털을 이용하면, 지도 서비스로 주변의 공공자원과 이용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이 필요하면, 원스톱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화순군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등록한 공공자원



은 공영주차장이다. 군은 공영주차장 60곳을 공유누리에 등록해 화순을 방문한 관광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화순읍 5일 시장과 로컬푸드 판매장 등 우

리 군의 우수 농산물 구매를 위해 방문하신 분들은 공유누리 포털을 통해 주변 공영주차장을 검색·이용하시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콩·보리 농사로 블루오션 개척' 고창 청년농업인 한선웅씨 도전 화제



고창군, '연소득 1억이상 300세대 육성 목표' 다양한 청년농부 학습단체 육성

2년전 전북 고창으로 귀농한 청년 농업인 한선웅씨의 열정 넘치는 도전이 화제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음면에서 콩과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한선웅씨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2021년 청년 경쟁력 향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한씨는 '고창 콩과 보리를 이용한 초코볼 브랜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콩에 초콜렛 코팅을 입힌 기존 제품에 새싹보리분말을 더한 웰빙식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한씨는 신기술

과 아이디어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과 장비 구축에 대해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앞서 한씨는 부모님과 함께 2018년 귀농해 콩과 보리를 재배하고 있다. 영농기술을 배우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년창업농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의 젊은 청년 CEO들로 꾸려진 '고창청년벤처스'에도 가입해 대외협력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고창청년들과 함께 천년알곡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해 농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선웅씨는 "모두가 외면하는 타작물 재배로 쉽게 농사 짓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며 "지역의 청년농부들과 울려퍼져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청년농업인의 연소득 1억이상 300세대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년농부 학습단체 육성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 "영농능계를 위한 갈등관리, 1:1 경영컨설팅, 재배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농업분야 취업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농들이 쉽게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 완주군, 1조원대 메가프로젝트 밑그림 나왔다

新安주 수소·농업·생태·문화 4가지 키워드로 미래 100년 도약

완주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4개 분야 1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가 윤곽을 잡았다.

지난 17일 완주군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메가프로젝트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별 비전과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수소, 농업, 생태, 문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린뉴딜 혁신허브, 농토피아 2.0, 공생공진 에코벨트, 소통하니 행복만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실국별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특히 수소특화산단과 수소에너지 중심의 주거, 상업공간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거점 수소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화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집적화로 완전한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로 제시된 그린뉴딜 혁신허브의 핵심은 역시 수소다. 수소시범도시 지정으로 가장 빠르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발을 맞추고 있는 완주군은 국내외 산업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또한 탄소소재

기술과 수소차가 융합된 전북형 자동차 생태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드론, 소형 모빌리티에 탄소소재 기술을 적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스템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농토피아는 박성일 군수가 민선6기부터 3대 비전으로 삼아온 것으로 '잘사는 농업농촌, 농민중심'이 핵심이다. 현재의 미래형 농업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세계무대 도약의 청사진을 세웠다.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국제 농생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완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또한, 완주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정간편식품을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농촌의 일자리를 크게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코벨트는 완주군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과 수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독립 대야생태원, 대둔산 도립공원 명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 소통하니 행복만개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향유의 만족도 향상을 이끈다.

군은 현재의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숲속 도서관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완주군은 이날 최종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종합계획, 국가예산, 전북형 뉴딜사업, 대선공약 반영 등 메가프로젝트

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메가프로젝트는新安주 시대 도약의 최대 핵심사업이 될 것이다"며 "발표된 대단위 핵심프로젝트가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철/기자



### 신안군 "신안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시금치 생력재배 및 일관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 소득 증가

신안군의 시금치 재배면적은 1,092ha로 2,000여농가의 겨울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효자 작목이다. 신안군 시금치는 추운 겨울 동안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잎이 두껍고 단맛이 강하며 타지역 시금치에 비해 저장성이 좋고 시장내 유명도가 높아 겨울철에 생산되는 시금치 중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신안군은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선정, 2020년부터 3년동안 신안시금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관행 시금치 재배 방식을 일관 기계화 및 생력재배법으로 전환하고 안정생산 단지조성, 기존 APC 소포장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시금치 재배 농가는 획기적으로 발작물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금치 농사는 파종부터 복토, 배수로 정비, 솎음작업, 수확작업, 세척 등 일련의 작업 과정에 노



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해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 소득 증가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농기계 사용 교육 및 현장연습회를 추진했으며 시금치 생력재배 및 일관기계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비대면 농가 기술지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신안군은 인구 감소 및 농가 고령화에 대비해 시금치 생력 재배 및 일관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명품 '시금치' 생산기반을 구축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최근 방문판매 관련 전북 101번 환자와 관련해 총 10명 확진

전라북도는 18일 오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9월 20일로 종료되나,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5%로 치솟아 2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1일 0시부터 9월 27일 20시까지 1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명절기간 방역을 위해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역 조치는 다음 주 관계부처 와 시도 회

의를 통해 결정·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 방문판매 관련 #101번 환자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10일간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 4차 감염까지 발생해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1번 환자와 관련된 방문판매 업체는 분사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로 불법 미등록업체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분사 및 지점, 센터 등 소재지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방향을 정하고 목록을 정리해왔으나 서울시의 관리 목록에 해당 업체가 누락됨에 따라 우리 道 방문판매업 점검 대상에 미 포함된 사각지대 업체로 밝혀졌다.

이에 전라북도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등록 방문업체 관리를 위해 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 시 방역수

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등록 업체는 읍·면·동사무소와 이동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으며 급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점검에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방문판매업 사업장 목록 현행화 촉구'를 건의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간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은 발열, 인후통 등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 '별거 아니다'며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시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읽기문화 강연회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보은군, '2020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준비 착착'

### 온라인으로 10월 16일 ~ 30일 15일간 개최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 대한민국 최고의 농·특산물 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보은대추축제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보은군은 생대추 등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10월이면 전국에서 보은대추축제를 즐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성황을 이뤘던 대추축제가 올해 온라인 축제로 전환되면서 축제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오프라인 판매장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대추를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군은 올해 온라인 축제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대추 등 농·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보은군 공식 유튜브 채널과 보은대추축제 홈페이지, 축제 페이스북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번 축제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보은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를 구성해 유튜브 스타와 함께하는 라이브 랜선버스킹 '대추나무 랜선 걸렸네', '생대추 유튜브 흡수평' 현장 프로그램을 15일간 운영해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온

라인 대추축제를 홍보하고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은대추축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운영해 대추축제를 소개하고 축제 기간 중 "보은대추 특별 이벤트" 등 온라인 행사를 개최해 참여자에게 다양한 이벤트 선물 당첨의 기회도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쇼핑물과 연계해 생대추 및 농산물 구매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국민 랜선 참여 행사로 보은대추사랑 "보은 대추송"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 보은대추로 전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은 대추송 국민체조를 개발해 홍보하고 노래, 율동, 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 참여를 유도해 챌린지 우수 영상 50팀을 선발하고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 축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 명품보은대추를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쇼핑물과 생대추 택배 주문 플랫폼을 운영해 주문장구를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한 생대추 구매 시 택배비 무료 이벤트, 쿠폰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보은군산림조합과 보은대추연합회를



통해 판매 기준 가격의 70% ~ 75%로 수매를 추진해 농가의 판로 확보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각 읍·면 및 작목반 등을 통해 규격별 생대추 수매물량을 파악해 수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TV, 라디오, 신문, SNS, 배너, 택배차량 랩핑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전국 10개의 보은향우회 단체 홍보를 비롯해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을 운영해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는 게릴라성 현장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크고 달고 맛

좋은 보은명품대추를 비롯한 보은 농·특산물 홍보로 판로 확보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금 번 온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추축제의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남은 기간 축제를 착실히 준비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농민의 시름도 덜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추축제는 91만 4300백여명이 방문했고 농·특산물 88억 300여 만원이란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보은대추축제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최만식/기자

# 공주시, 리모델링스쿨 1단계 '공간이야기 발굴단' 모집

### 공주시의 유류 공간 조사 및 이야기 수집

공주시가 공주 전역을 대상으로 유류공간을 조사하고 이야기를 수집·발굴하는 리모델링스쿨 1단계 '공간이야기 발굴단'을 모집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거점 공간 개발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16개 읍·면·동의 주민리더를 선발해 공간 이야기를 발굴하는 문화도시사업이다.

공주시 문화도시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간의 구조와 공간별 특징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공간을 둘러

싼 각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을 시민이 주도해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문화도시 공주의 이야기를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의 다양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만 70세 이하 공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공주시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된 발굴단에는 특전으로 특별활동비 및 리서치 개발 멘토를 매칭해 주고 우수 선발팀에게는 팀당 500여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고정화/기자



# 남양유업(주) 세종공장,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 장군면 독거노인·한부모

### 장애인 등 12가구에 후원물품 전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남양유업(주) 세종공장과 중앙연구소 임직원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7일 장군면 저소득 12가구에 백미, 락토프리 우유, 발효유 등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남양유업(주) 세종공장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남양유업은케어엔류이 사회공헌 브랜드 출범 이후 전사적 소의계증

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남양유업(주) 세종공장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을 후원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장군면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사회공헌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주민의 안전과 방역, 지역 생태계 보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재연 공장장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청솔공원 봉안당 성묘일자 지정 운영

강릉시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한꺼번에 많은 성묘객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 청솔공원 실내공간인 봉안당의 경우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호실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해 사전 예약제가 아닌 성묘 일자 지정제로 운영한다.

지정일자는 강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고인의 안치 번호로 성묘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성묘 일자 지정 기간 동안 봉안당 제례실과 외부 분향소는 폐쇄하며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성묘객이 추석 당일이나 전후일에 몰릴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성묘 일자 지정제를 운영하게 됐으며 유가족이나 친지 등이 고인의 안치 번호를 모를 경우 청솔공원으로 전화하면 확인 가능하고 성묘객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반 묘역의 경우는 지정운영제는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대책을 준수해야 하며 되도록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성묘하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성묘객의 분산대책 일환으로 오는 21일 12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한다.

화면 상단에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선택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차례상, 분향, 사진첩 등으로 추모관을 꾸민 후 가족들과 함께 추모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성묘할 수 있다.

강릉시 청솔공원의 화장장과 매장 및 안치 업무는 추석 당일에는 휴무하며 민원처리만 가능하다.

이명원/기자



# 옥천군,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2년 연속 선정



## 2020년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선정에 이어

충북 옥천군이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으로 총사업비 158억원으로 구성된 4종 복합 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읍의 경우 철도와 국도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권과 달리 많이 소외된 서부권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2년까지 3개년 목표로 진행 되고 있으며 복수의 생활SOC 관련 시설간 연계를 통해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복합화 시설의 경우 단일 시설 지원 비율에 국고 보조율이 10%인상되며 대상 시설로는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 등 13종 시설이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최근 옥천읍 서부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지 꼼꼼히 따져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제26회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 산업장에 양경철씨, 체육장에 서인오씨 선발

김제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의 장 선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제26회 김제시 시민의 장 수상자 2개 분야 2명을 선정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산업장 양경철, 체육장 서인오이다.

산업장 수상자 양경철씨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소득 향상을 이루어 우리 농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여했으며 체육장 수상자 서인오씨는 김제시청 태권도팀 감독으로 22년간 재직하며 각종 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김제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세계대회 및 각종대회 우승선수를 배출해 김제시 위상을 높이고 김제시 체육발전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김제시 시민의 장은 매년 김제



을 높이고 김제시 체육발전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김제시 시민의 장은 매년 김제

지평선축제 개막식에서 수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여식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송일/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미래 100년 먹거리 해양치유산업 특강 실시

### 간부 공무원, 읍면장 포함 전 직원 대상 특별 강의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7일 완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간부 공무원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읍면장의 경우, 군정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번 특강의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산업의 이해', '사업 추진 현황', '해양바이오산업의 이해',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 '해양관광 거점도시 조성' 등이다.신우철 군수는 특강을 통해 "완도의 미래 전략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전 직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며 공부하는 직원상을 강조했다.특강을 마무리 하면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만 2천개, 관광객 유치 100만명, 소득 창출 9,800억원"을 강조하며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군은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및 읍면장 주도하에 전 부서·읍면별로 해

양치유산업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영울/기자

# 김상돈 의왕시장, 시민 안전 위한 현장점검 나서

### 매일 직접 주요 시민불편현장 등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의왕시는 지난 17일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민원현장을 점검하는 '제22차 현장행정의 날'을 진행했다.김상돈 시장은 주요 민원 발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민선7기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제22차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김 시장은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발도르프 학교 앞 도로 포일초등학교 앞 '엘로우 카펫' 설치현장, 학의천변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현장 등 아이들의 등·하교 환경과 하천변 산책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 확보여부와 함께 공사 진척상황 등을 점검했다.또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신개념 놀이터인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현장인 포일동 두터비 공원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노후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개념 놀이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불편 현장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시민



의 입장에 맞추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갖출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박상찬/기자

# 장정민 응진군수, 관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게 코로나19 대응 감사패 수여

인천시 응진군은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설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방역물품 확보, 출입 시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시설 소독, 중사

자 이동 제한 등 방역 단계별 운영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응진군 사회복지시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응진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장정민 응진군수는 "사회복지시설

의 철저한 방역과 협조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대구 오페라 스유헤



#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개최

민간 대표 기업들의 디지털 뉴딜 분야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동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 벤처캐피탈,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통신 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LG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까지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 또한 버네트, 테크빌교육, 알서포

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 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 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본격적으로 개시된 토론의 장에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투자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민간 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정부의 재정투자 및 최근 발표된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펀드'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호응해 민간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사업 등 아이디어와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내수 경기회복과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뉴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반도 구성해 구체적 투자계획과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유·보고하고 뉴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세부사업들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중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대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민·관 협력회의에 동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 세종테크밸리 입주자 모집·분양

4·2생 6개 필지 대상...18일 분양공고 11월 2일부터 입주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잔여 토지 6개 필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및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분양토지는 분양대상 47개 필지 중 잔여 산업용지 3필지와 복합용지 3필지로 분양가격은 3.3㎡ 기준 산업용지 190만원, 복합용지 250~280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 분양일정은 18일 분양공고를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며 희망기업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평가한 후 협의대상자를 선정,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12월 중순 입주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및 토지분양에 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은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여건과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업

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 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며 "세종테크밸리를 첨단업종 성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완도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40억 확보

완도문화원, 어린이·청소년·지역 주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완도군은 '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완도 별바다 지식·치유 어린이 플랫폼'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완도문화원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3년간 추진하게 된다.

완도군문화원은 30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 신시가지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7년 동안 폐 공간이었으나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을 위한 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

'완도 별바다, 지식·치유 어린이 플랫폼'을 비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지식·치유놀이 플랫폼, 청소년 안전문화 거점 공간 조성,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 공간 조성, 야간문화를 위한 힐링 콘텐츠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언플러그드 야외 공연장

과 야외 옥상 우드 테라스 조성, 폼바라기 별빛 공연 등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복합시설과 연계시켜 완도문화원이 우리군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민들이 활기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선 완도읍 주민협의체 위원장



양영욱/기자

# 전남도,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선발

만18세~34세 14일까지 모집...도시재생 전문가 성장 기회

전라남도도 도시재생 분야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모집에 들어간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경험하며 전공에 맞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인턴십에서 전국 350명을 선발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한 8개 시군에 21명을 선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된 인턴은 수련기관으로 배정되기 전 1개월간 기본소양과 민원응대, 도시재생 업무 이해 등 이론교육을 거친 후 각 센터에 배치된다.

모집은 오는 14일까지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시 수련 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고교·대학 졸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선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라남도 한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인턴십에 참여해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대구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http://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